

2017년 제21차 국제적십자사연맹 총회에 보내는 청원

12명의 북한 해외식당 여성 종업원들의 생이별의 고통을 아시나요?

-이들에게 북측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진정한 봄을 되돌려 주세요.

국제적십자사연맹 총회에 참석한 전 세계 적십자사, 적신월사 대표 여러분!

먼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하여 전세계 인도주의 문제를 공동으로 협력하여 해결하고자 2017년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일정으로 터키에서 개최되는 제21차 국제적십자사연맹 총회에 참석한 각국 적십자사 대표님들과 적신월사 대표님들께 인류애를 담은 따뜻한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인류보편의 인권의 향상과 대한민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TF” 변호사들입니다.

각국 적십자사, 적신월사 대표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을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만약 600일 동안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600일 동안 끊임없이 누군가의 관리와 통제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여기, 인권과 천륜이 철저히 짓밟힌 이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6년 4월 8일,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뜻을 대변할 국회의원 총선거를 닷새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느 선거가 그렇듯 온갖 공세와 선전이 넘쳐나던 그 날 오후, 통일부는 12명의 북한 해외식당 여성 종업원들이 북한을 이탈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입니다.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은 언제나 민감한 정치적 이슈가 되고, 특히 선거 기간 동안 안보와 이념의 논리는 보수정권이 늘상 선거에 동원하는 논리로 정책과 철학에 기반한 건강한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토록 예민한 국회의원 총선거를 닷새 앞둔 날, ‘대한민국의 삶을 동경한’ 2-30대 북한 여성 12명이 자발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왔다는 소식은, 이들이 입국하자마자 곧 온 언론을 뒤

뒀었습니다.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들은 국가정보원(정보기관)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들어갑니다. 그 곳에서 정말 남한에 정착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간첩은 아닌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를 마치기 전까지는 탈북사실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업원들의 입국사실은, 그것도 한국정부(통일부)에 의해 하루 만에 공표된 것입니다.

당시 박근혜 정권은 이들 종업원들이 대한민국을 동경하여 자발적으로 들어온 것이 자신의 대북제재정책에 의한 효과로 설명하며 이를 선거에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들 종업원들의 대한민국 입국에 대하여 당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승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이 개입하여 북한 해외식당 지배인과 공모하여 여성종업원들을 속여서 대한민국에 입국시킨 유인납치행위라는 주장이 날로 확산되며 이 사건의 진상규명 요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법령상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되면 최장 180일간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과정에 외부와의 어떤 접촉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죄판결을 받고 수용되는 자에게도 외부와의 접촉이 허용되는데, 이들 북한 해외식당 여성 종업원들은 북한을 벗어나 남한으로 왔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의 조력도, 가족들과의 만남도 법적 근거 없이 완전히 차단된 채 6개월간 수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 인권인 신체의 자유도,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도, 국가정보원의 안보 논리 앞에 설 곳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이들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이후, 이들 종업원들의 북측 가족들로부터 간신히 대한민국 내 모든 소송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대한민국의 변호인들은 이들 종업원들을 접견하고자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국가정보원은 단 한 차례도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의사와 신변을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요청에, 그저 이들 종업원들 스스로가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대답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정작 그들의 뜻을, 신변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말입니다.

변호인들은 대한민국의 법이 마련하고 있는 모든 절차를 통해 이들과의 접견을 시도

하고, 가족들의 안부를 전하려 하고,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이미 자유롭게 잘 살고 있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했고, 대한민국 법원 또한 이런 국가정보원의 설명만 믿고 종업원들의 현재 상황과 그들의 진정한 의사를 법정에서 직접 확인하자는 변호인들의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국가정보원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그 누구도 종업원들의 신변을 알 방법이 없고, 북측 가족들은 딸들의 생사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태로 1년 반의 시간을 보내야했습니다.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는 종업원들의 안부는, 지금까지도 오직 국정원의 말뿐이고 법원을 비롯한 그 누구도 종업원의 신변안위를 제대로 확인한 적이 없고 그러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측 가족들은 이 사건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의 유인납치행위로 규정하고 딸들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국제사회에 요구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한 종업원의 아버지는 딸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사망하였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 종업원들이 이토록 철저히 통제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각국 적십자사, 적신월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곳 국제적십자사연맹 총회에서, 인권과 천륜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600여일 가까이 북측 가족과 서로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이들 앞에,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고자 하는 국제적십자사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바로 이들 종업원들과 북측 가족들에게 국적, 인종, 종교적 신념,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관계없이 오직 개개인의 절박한 필요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국제적십자정신이 가장 강력하게 발휘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들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곧 국제적십자정신의 실현입니다.

12명의 종업원들이 어떠한 간섭도 없이 진정한 자유의사에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최소한 가족과 서로의 안부를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남북 적십자사 사이의 대화와 소통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이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속에서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국제적십자사연맹 총회에서 세계가 보는 앞에서 남북적십자사 대표들이 힘을 모아 12명의 종업원들에게 북측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진정한 봄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적십자사연맹 총회에 참석한 각국 적십자사, 적신월사 대표들과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7년 11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사건 대응 TF